

서울예술단
다원 영의 악의 기원

서울예술단의 올해 첫 번째 신작 '다원 영의 악의 기원'은 박지리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유서 깊은 명문학교 프라임 스쿨에 재학 중인 열여섯 소년을 중심으로 작품이 펼쳐진다. 보편적인 성장 드라마에 집중하기보다는 감당하기 어렵고 무거운 진실을 마주한 소년이 기존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그린다. 선과 악에 대한 원초적 질문을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생각하게 하는 원작의 메시지가 무대 위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를 모은다. 이희준이 각색했으며, 오경택이 연출을 맡았다. 여기에 작곡가 박전휘의 음악과 안무가 안영준의 밀도 높은 춤이 더해져 무대의 완성도를 높인다. 숨겨진 진실을 찾는 주인공 다원 역으로 배우 최우혁이 낙점됐다. 다원의 아버지이자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니스 역으로 박은석, 삼촌의 죽음을 파헤치는 대담한 소녀 루미 역으로 송문선이 무대에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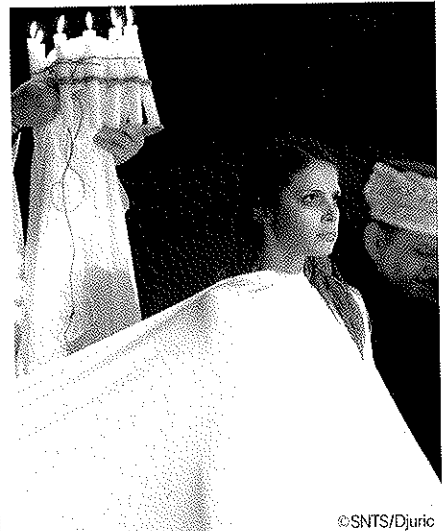
날짜·장소 10월 2~7일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문의 서울예술단 02-523-0984



연극 이야기의 방식方式,
춤의 방식方式-공옥진의 병신춤 편

이 작품은 2014년 혜화동1번지에서 선보인 '이야기의 방식方式, 노래의 방식方式-데모버전'의 연작으로 남산예술센터와 연출가 윤한술이 이끄는 극단 그린피그의 다섯 번째 공동 제작 작품이다. 초연 당시 판소리 '적벽가'의 한 대목을 통해 전통의 계승문제를 다뤄 세간에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올해는 '병신춤'의 대가 공옥진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그녀의 '병신춤'을 키네틱 센서를 이용한 게임으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발상에서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병신춤'의 동작을 복제해 게임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무대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는 한국사의 질곡속에서 춤을 배우며 느낀 공옥진의 감정과 고민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녀가 후대에 남긴 '병신춤'의 형태에 대한 제자들의 고민 역시 엿볼 수 있는 무대다. 실제 공연에 공옥진의 수제자들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 더욱 기대를 모은다.

날짜·장소 10월 4~14일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문의 남산예술센터 02-758-2150



©SNTS/Djuric

제18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연극과 무용, 다원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가 올해도 우리 곁을 찾아온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국제 교류가 활발하지 않던 때부터 수준 높은 해외 작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교류 구실을 해왔다. 올해 18회를 맞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해외 초청작 5편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작품 12편이 무대에 오른다. 여기에 창작산실과 서울연극제가 협력해 완성한 작품 2편, 한국·싱가포르의 예술가가 참여한 글로벌 커넥션 3편도 만날 수 있다.

개막작인 세르비아 국립극장의 '드리나 강의 다리'를 시작으로, 리투아니아 빌뉴스 시립극단의 '갈매기', 안 세실 반달렘 연출의 '트리스테스-슬픔의 섬'이 연극 장르 해외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무용 장르의 해외 초청작 콤파니 카피그의 '픽셀'과 다섯 명의 핀란드·아일랜드 예술가가 조디악 센터에서 공동 작업한 '메도우, 메도우, 메도우' 역시 기대작으로 꼽힌다.

날짜·장소 10월 7일~11월 4일 | 아르코예술극장 외
문의 서울국제공연예술제 02-2098-2985